

담배를 피우는 것은 몸에 해롭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물론 누구에게도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 때문에 간접흡연을 사게 된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담배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므로 담배 광고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공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게하는 대신 흡연자에게 흡연실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특히 병원이라던가 식당에서는 흡연을 금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흡연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원하고 비흡연자들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쪽 중 어떤 쪽도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양쪽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비흡연자들에게는 최대한 피해를 주지않고 흡연자들에게는 담배를 피우는 권리를 줘야한다. 현재는 흡연인구보다 비흡연인구가 많으므로 많은 사람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담배광고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담배광고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텔레비전이 아니라도 영화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것은 괜찮은가?

물론 그렇지 않다. 담배광고가 특별히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담배광고라는가 공공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흡연은 허락한다.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자들을 위해 흡연실을 마련해 줘야한다.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흡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라든가 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운다. 버스나 전차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가 다른 사람에게 오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것에 신경쓰지 않는다.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흡연을 피해주기 바란다. 그래서 나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반대한다.